

겉과 안

崔 賢 淑

(同德女大 衣類學科)

자랄 때 어머니께서 꼭 나를 향해서가 아니라도 교훈적으로 언급하셨던 여러 말씀으로 지금까지 뇌리에 남아 있는 것 중에, “겉 불 안”이라는 말이 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 라는 반대 쪽 끝에서 있는 듯한 개념과 나란히 이 말이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 온 것은 아마도 인간 삶의 眞實이란 그 한 쪽만을 보아서는 결코 포괄적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는, 오랜 세월 면면히 축적되고 전수된 옛 어른들의 경험적 지혜의 산물이 아닐까 한다. 사실 나로서는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표현이 우리 삶의 본질적 二重性을 대립적으로 지칭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허위와 가식이 오히려 전면에 우세하게 드러나 실제보다도 훌륭하게 보이는 경우, 그리고 그 가식적인 겉 때문에 열등하거나 추악한 實體가 가리워져 있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경우에 더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될 만큼 중요한 인물과 관계있거나 사소한 개인적 경험에 불과하거나를 막론하고 그 표현을 접할 때마다 매우 거슬리는 느낌을 받은 한다.

반면에 “겉 불 안”이라는 표현은 특히 사람됨에 관한 한 두 가지 측면의 접근방향이 가능한 것으로 느껴진다. 한 가지는 겉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난다는 결과론적인 접근이다. 다른 한 가지는, 그러므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겉을 가지려면 그 안이 진실로 그러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성격의 접근일 것이다. 지금 돌이켜 보면 나의 어머니께서 자식들에게 이르고자 하셨던 내용은 오히려 후자에 가까우리라 여겨지지만, 어머니의 평소의 통찰력을 고려할 때 당신의 자식들이 겉을 보고서도 능히 안을 헤아릴 수 있는 헤아림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또한 바라신 것이리라.

사람이 가지는 ‘겉’의 요소로서 보이지 않는 안에 대한 判斷의 기준이 되는 점들을 지칭한 것으로 ‘身言觀判’이라는 표현이 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타고난 신체적 조건은 후천적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말이나 글은 스스로 갈고 닦는 노력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대단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부분으로서 우리나라 역사를 통하여 인격도야의 중심부분이 되어온 경향마저도 있다. 특히 선비의 인물됨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말과 글에 의해 판단되어 왔으며, 文章으로 국가기관에 봉직할 인재를 가려 뽑는 과거제도야말로 인간됨의 판단방식을 극적으로 요약해 준다. 과묵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설파한 서구 學者의 교향에서 오직 ‘글 짓기’만으로 관리를 등용한 예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면 겉의 주요 구성요소인 ‘身’은 어떤

가? ‘身’이 지칭하는 바 여러 가지 하위개념이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이미 지적한 타고난 신체 그 자체와 그 신체를 감싸는 衣服이 있을 것이다.

衣類學을 전공하는 내게는, 의상이라는 조형예술의 한 장르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토대인 人體 그 자체에 대한 美學的 접근과 더불어 옷이 갖는 藝術的 형식 및 내용에의 분석적 안목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입혀지는 하나의 옷(겉)은 그 사람의 신체(안)를 물리적으로 감쌀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위, 선호, 개성, 정치적 의견, 사회에 대한 반항이나 해학적 태도 등의 ‘안’이 되는 내용을 감싸면서 동시에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의상을 하나의 기호언어이며 무언의 통화체계라고 말하고 있으며, 소설가들이나 연구, 영화, 오페라의 연출가들은 작품의 분위기라는 모호한 개념을 위해 혹은 인물의 성격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제시의 한 수단으로 흔히 의상을 사용한다. 또한 극단적인 分化와 그로 인한 多樣化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 내에서 시간을 두고 사람을 관찰하고 관찰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겉 볼 안’의 개념을 그야말로 겉으로만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Dress for Success* 라는 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의 지침서들이 일반인들의 관심과 인기의 대상이 된 배경에는, 의복은 한 사람의 內面의 表現이므로 그것을 통해 그를 알 수 있으며 어떤 사회에서나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는 해당 사회의 문화가 요구하는 ‘Dress Code’가 있어 이를 어기는 것이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기본적 假定이 깔려 있다. 그리고 이 가정들은 실증적 연구에 의해 상당한 뒷받침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에 말한 일반, 즉 대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따로 노는’ 부류가 언제나 있게 마련인데 이들은 비동조자라고 부른다.

새로운 流行의 발단이 되는 혁신집단으로서의 비동조자와는 달리, 내 남편은 아마도 동조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에 은근한 자부심마저도 느끼는 게 아닐까 싶으리 만큼 옷 입는 데 있어서는 자기 마음대로다. 그는 의류학 전공인 아내가, 가르치고 연구하는 자기의 직업에 적합하다고 여기는 최소한의 복식규범을 최대한 완곡하게 알려주는 誠意를 보이기 그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편안함을 목표로 그날그날의 옷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뒷 목둘레 울이 풀려 芯地가 보일 정도로 닳아진 셔츠도 단지 뻣뻣하지 않고 편하기 때문에, 내가 내 준 셔츠는 어느새 어디론가 치워버리고 당당하게 입고 나선다. 깨끗해야 하기에 너무 자주 세탁한 면바지도 원래 색상과는 한참 멀어진 데다가 포켓 부리나 바짓단 부위는 거의 흰색에 가깝게 닳아지도록 입으면서, 새 양복바지들은 몇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새 바지로 있다가 옷장에 걸린 채 그냥 작아지고 말았다. 그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같은 직장에 올 후배들이 쓸데없이(내가 가장 격분하는 대목이다) 옷에 신경쓰지 않고 자기 할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前例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자기만큼 의복행동에서 비동조적이며 자신의 내면과 의복을 완전히 딴 세계에 속하는 것이라 여길 후배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도 가져보지 않은 채 ‘겉 볼 안’에 관한 無知 내지는 의도적 외면을 선구자연한 사명감으로 즐기며 代置하며 살아가는 남편이 때로는 솔직히 부럽기도 하다. 다만 그의 자유와 비동조가 大學이라는 울타리 속에서이기에 용납된다는 점을 그가 알면 죽하다.

의복이 個人의 內面을 나타내는 부면을 造形上의 관점에서 본다면, 색상의 선택과 조합, 재질이 주는 느낌, 그 옷에 보여진 線과 形態의 종류 등에서 디자이너가 어떤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일단 완성된 옷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심리적으로는 個人으로서의 소비자가 그 옷과 內的 自我와의 一致性 및 옷을 통한 理想的 自我의 投射 가능성이라는 두

가치 접근을 의식·무의식적으로 하게 된다. 여기에서 개인이 ‘知覺하는 바 자기’라는 개념이 중요한 측면이며 이 지각된 자기(자아)가 사실상의 자기와 일치하는 정도가 클수록 옷을 통한 自己表現이 올바르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추구하는 바, 理想的 自我의 표현으로 移行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이다.

無言의 의사전달체계, 內面을 보여주는 제2의 피부인 옷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日常을 통하여 그 表現機能을 경험적으로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의상 디자인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오히려 조심스러워지는 면이 있다. 大學院 수업 중, 하나의 主題를 제시하고 그 주제에 의한 디자인을 해 오라는 과제에서 내가 가장 마주치기 두려워하는 작품은 주제가 충분히 익지 않고, 고개를 치켜든 채 소리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의상 디자인이란 ‘결구’하지 않고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옷이다. 학생들에게 나는, 미국의 슈퍼마켓에서는 쇠고기가 부위별로는 물론, 그 등급에 따라 가격이 매겨져 있고 최상급 고기의 가격은 質의 指標로서 물론 대단히 높다고 말한다.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메시지란 마치 “이 고기는 비싸고 질이 좋으니 맛있어요.” 하면서 우수한 요리사의 손끝을 거치지 않고 접시에 덜렁 날(raw)로 올려놓은 육회 같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또 한편 육회를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에, 나의 個性이 배제된 客觀的 視角에서 작품을 평가하려 애쓰면서 그들에게도 客觀性이 포함된 냉철한 科學的 접근방식으로 感性을 요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납득시키려고 노력한다. 요컨대 ‘결 불 안’이 되, 투명하여 안을 모조리 들여다 볼 수 있는 재질이거나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나를 곁에 조목조목 알아보기 쉽게 써 놓는 식으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곁이 있으므로 안이 存在하는 우리 삶의 二重性을 해쳐 참모습을 발견해내는 탐구의 묘미가 사라질 것이다. 또 곁을 통해 안을 볼 줄 아는, 완전하지는 못하나마 약간의 洞察力을 갖기에 이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또는 그렇지 못하다고 그들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갖는 비밀스런 相對的 우월감도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衣服으로 보여지는 自我’, ‘衣服의 디자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內容’은 모두가 ‘결 불 안’의 예가 되면서, 그 곁이 진실하고 솔직하게 안을 표현해야 함과 동시에 많은 생각과 시도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도달한 아름다움과 힘이 가득한 안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方向性의 차이 외에는 본질적으로 다름없는 것들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성숙에는 은근함이 함께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그러다 보면, 老年임에도 불구하고 자애로운 아름다움과 소녀 같은 웃음과 딸들을 위한 지혜를 조화롭게 지니고 계신 어머니의 볼 수 있는 결과, 아직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한 탓으로 도달하지 못한 그 깊은 속에 비하여 오늘의 나 자신의 모습은 과연 어떤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技法을 가르치고 있는 내가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의 內面世界와 關係를 맺고 있음을 떠올리면, 그들이 보여주는 내용의 극히 일부라 한지라도 내 책임으로 귀속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自覺에서 이제 2년 남짓 교단의 末席을 차지하고 있는 내가 앞으로 터득해야 할 수 없이 많은 ‘가르친다는 일’의 意味들이 상당한 重壓感으로 나를 누른다. 그러나 이 중압감만큼이나 커다란 즐거움이, 매일 학생들을 데리고 새로운 것을 느낄 때, 그리고 선배교수들의 결과 다름없이 따뜻한 안을 만날 때, 샘처럼 솟아나고 바위처럼 나를 받쳐주어 나는 幸福하다. ■